

일본어 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법에 관한 실천연구

—암기와 새도잉 연습을 대상으로—

박혜성*
최진희**

(e-mail : hspak@hanbat.ac.kr, pumpkin98@hanmail.net)

<목 차>

- | | |
|------------|-----------------------|
| 1. 머리말 | 4. 결과와 고찰 |
| 2. 선행연구 | 4.1. 일본어 능력 향상 테스트 결과 |
| 3. 조사의 개요 | 4.2. 학습법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 3.1 조사 대상자 | 5. 맺음말 |
| 3.2. 조사 방법 | |

키워드 : 習得(acquisition), 暗記(memorization), シャドーイング(shadowing), 長期記憶(long-term memory), JFL(Japanese as Foreign Language)

1. 머리말

대학의 일본어 수업에서는 일본어 능력 향상, 일본어 습득을 위해 다양한 지도법을 시도하고 있다. 교수자라면 주로 패턴 연습이나 롤 플레이, 페어 워크, 프로젝트 워크 등을 통해서 학습자가 흥미를 가지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항상 고민하고, 연구하는 데 힘쓰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학생 스스로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어떻게 학습하는가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어 교육 현장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일방적인 교수 및 지도법보다 교수자와 학습자 상호 간의 소통, 학습자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학습자의 자율학

* 국립 한밭대학교 인문사회대학 일본어과 교수. 일본문학전공, 제1저자.

** 백석문화대학교 글로벌어학부 조교수, 일본어전공, 조교수, 교신저자.

습에도 주목하기 시작했다. 본 연구에서는 과제 수행의 일환으로서 암기(memorization)와 새도잉(shadowing) 연습을 시행하여 일본어 능력이 어느 정도 향상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암기와 새도잉을 교수자의 관점이 아니라 학습자에게 초점을 둔 것으로 지도법이 아니라 일본어 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법으로 표현하도록 한다. 과제 수행이기 때문에 강제적인 측면도 있지만 학생에게 확실하게 학습의 동기 부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히로모리(2017)는 제 2언어 습득의 인지 프로세스를 4단계로 정리하고 있다. ①인지(noticing)→②이해(comprehension)→③내재화(intake)→④통합(integration)의 과정이다¹⁾. 또한 이 프로세스를 촉진하기 위한 인풋 활동, 아웃풋 활동의 기회를 충분히 확보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제2언어 습득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한다. 한국 내 대학의 경우 JFL(Japanese as Foreign Language) 학습자로 항상 일본어에 노출되어 있지 않은 환경으로 인해 인풋과 아웃풋 활동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언어 지식의 자동화 단계인 ‘통합’으로 나아가기 위해 학습자의 연습방법이 더욱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가 스스로 이용할 수 있는 연습방법 중에서 암기와 새도잉 연습에 주목하였다. 암기와 새도잉은 궁극적으로는 자율 학습, 자기주도 학습으로 나아갈 수 있고, 제2언어 습득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학습법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암기는 보편적이고 많이 이용해 온 방법이다. 암기는 이제까지 언어 학습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당연시 여기는 학습법이기 때문인지 굳이 일본어 교육에서 검증의 대상이 된 적이 없는 것 같다. 하지만 영어, 한국어 교육에서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새도잉 연습은 동시통역 분야의 연습법으로 사용되었으나 영어 교육에서 그 효과가 검증되어 2000년대부터 일본어 교육에서도 도입되었는데 관련 연구 보고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새도잉은 들려오는 음성을 듣고 늦지 않게 바로 따라하는 연습으로 즉시성(即時性)이 중요한 특징이다. 새도잉은 인풋과 아웃

1) ①인지(noticing)는 눈이나 귀로 들어오는 정보(예, 단어, 문법, 음성등)를 단기 기억에 저장하는 단계다. ②이해(comprehension)는 보유한 정보를 의미, 형식, 기능을 바탕으로 심층이나 얕은 레벨로 처리하거나, 의미, 형식, 기능 관련해서 일종의 가설을 세우는 단계다. ③내재화(intake)는 이해한 정보를 자신의 중간언어를 형성하여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과 비교, 검증하는 단계다. ④통합(integration)은 흡수된 정보를 장기기억으로 저장하여 자동화 처리를 하는 단계다.(히로모리,2017:2)

뜻을 동시에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JFL 학습자에게 적합하리라 생각된다. 암기, 새도잉 둘 다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장기기억(long-term memory)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여겨진다. 장기 기억에 저장되는 것은 연습을 통해서 저장되는데 정보의 저장은 반복적인 암기 연습이 필요하다. 새도잉은 직접적인 암기 연습은 아니지만, 새도잉 연습을 통하여 새로운 정보를 반복하는 과정 중에 장기기억을 형성하는, 다시 말하자면 새도잉도 암기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대학의 초급 레벨의 일본어 학습자가 암기와 새도잉 연습을 이용한 경우 일본어 능력 향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학습자들이 암기와 새도잉 연습을 경험한 뒤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려고 한다.

2. 선행연구

2.1. 암기에 관한 실천연구

쿡(1994)은 언어 학습자들에게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어휘 학습방법으로 암기를 들고 있다. 어휘가 기억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하고 학습하는 것으로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해는 하지 않고 단순 반복하는 학습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 보편적인 방법이라고 한다.

영어 교육에서는 암기에 관한 실천 연구가 보고되어 있다(김경란,2010; 임미진,2011; 신선혜·김태은,2015). 김경란(2010)은 한국의 경우 영어 학습에서 암기의 비중이 상당하고, EFL의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은 암기 없이 영어 습득이 불가하다고 주장하였다.

임미진(2011)은 드라마 영상물을 대상으로 암기 활동을 위한 수업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암기 과정에 대해 암기 전 단계, 암기 중 단계, 암기 후 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별 활동을 세분화하여 제시하였다. 암기 전 단계는 친숙활동(장면 친숙활동, 언어 친숙 활동), 암기 중 단계는 음독, 받아쓰기, 대본 암기, 암기 후 단계는 암기한 대본을 응용하는 단계로 암기의 효과를 체험할 수 있는 역할극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신선혜·김태은(2015)은 암기와 의미망 전략(semantic mapping)²⁾이 초등 영어 학습자의 어휘 습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고했다. 의미망 전략이 암기보다 학습자의 단기 어휘 습득에 효과가 있었고, 실험 수업이 끝나고 5주 지연 어휘 검사를 실시한 결과 생산적 기억 유지 측정을 위한 어휘 회상 검사에서도 의미망 집단이 암기 집단보다 실력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국어 교육에서는 류자미·오성록(2016)의 연구가 있다. 류자미·오성록(2016)은 베트남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말하기 능력 향상을 위한 전략으로 암기의 효과에 주목하였다. 짧은 시간 내에 목표 언어를 습득하기 위해서는 ‘통 문장 암기’가 권장할 만한 교수법이라고 입증하였다. 또한 학습자도 통문장 암기가 학습 효과가 있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선행 연구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암기는 언어 학습에 있어서 효과적인 학습법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본어 교육에서는 암기에 주목한 연구가 아직 보고된 것이 없고, 어휘와 말하기에 암기를 도입하고 있지만, 문법에 대한 암기 효과의 연구는 드물다. 본 연구에서는 문법에 대한 암기의 효과를 확인하고, 기계적인 암기 반복의 한계성을 보완하기 위해 문맥이 제시되어 있는 하나의 스토리를 전체 암기하는 방식으로 하고자 한다.

2.2. 새도잉 연습에 관한 실천 연구

가도타(2010)는 영어 교육에서 새도잉 연습의 효과로 듣기 능력의 향상, 어휘 청크(a phrase or a set of words) 및 구문의 내재화³⁾, 읽기 능력의 향상을 지적하고 있다. 새도잉 연습이 발화 속도를 향상시키고 음운 루프(음성적 단기 보관고)내에서 내적 리허설(능동적으로 음성정보를 반복하는 것)이 가능해지면 어휘, 구문 등 전체를 통째로 기억하여 자동화하기 쉽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반복적으로 새도잉 연습을 하면 발화 능력이 향상되고 저질로 자동화된다는 것이다.

새도잉 연구는 일본어 교육 분야에서도 음성, 문법, 구두운용능력에 이르는

2) 의미망 전략은 주제나 개념 중심으로 관련된 범주의 어휘를 연결하며 수직적 혹은 수평적으로 확장시켜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의미망 전략은 슈미트(1997)가 제시한 어휘 학습 전략으로 하나의 단어를 중심으로 의미망을 만들 수도 있고, 텍스트 상에서 핵심어를 중심으로 의미망을 그리면서 텍스트의 내용을 구조화시키는 방법도 있다. (신선혜·김태은, 2015:83)

3) 가도타(2010)가 언급한 내재화란 자동화된 운용 레벨에 달한 상태이다. 다시 말해서 문법 지식에서 그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구두로 말할 수 있는 단계로 언어 습득의 바람직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면에서 그 효과가 보고되고 있다(사코다·마쓰미,2005; 사코다,2006; 사카이,2006; 장혜정·구라모치,2008; 邱,2011; 최진희,2012; 최진희·조선영,2018).

우선 새도잉과 다른 학습법과의 비교 검증을 한 연구로는 사코다·마쓰미(2005), 사코다(2006)가 있다. 사코다·마쓰미(2005)는 음독과 새도잉을, 사코다(2006)는 필사(書寫)와 새도잉을 비교했다. 이들 연구에서는 다른 연습법보다 새도잉 쪽이 복수의 테스트에서 좋은 점수를 얻고 있어 그 효과가 더 크다고 검증하였다.

음성에 관한 연구로는 사카이(2006), 장혜정·구라모치(2008), 최진희(2012)가 있다. 새도잉 연습이 발음 오용을 감소시키고 발음 지도에 있어서 효과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최진희(2012)에서는 장음의 오용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문법에서는 큐(2011), 최진희·조선영(2018)이 있다. 큐(2011)는 대만의 일본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새도잉 연습을 통해 경어 사용의 정확성이 향상된 것을 확인했지만, 문법의 내재화, 즉 문법이 완전히 정착하지는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최진희·조선영(2018)는 한국 대학의 정규 수업에서 새도잉을 도입하고 있다. 대학의 수업 특성상 새도잉 연습 시간이 부족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새도잉 연습의 연습 시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내성노트를 도입하고 있으며 새도잉 연습 전후의 테스트에서 일본어 능력 향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내성 노트의 분석에 따르면 학습자 스스로 새도잉 연습의 효과로 내용의 이해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하였고, 또한 발음 스피드가 개선된 점에 만족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독해 분야에서는 영어 교육의 가도타외 (2014)의 연구가 있다. 내용 이해도에 있어서 듣기 연습은 사전과 사후에 차이가 없는 반면 새도잉 연습은 사전보다 사후 쪽의 정답률이 높아 유의차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런 점으로 보아 새도잉 연습이 내용의 이해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새도잉 연습이 일본어 능력 향상에 유효한 학습법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필자가 조사한 바로는 일본어 교육 분야에서 일본어 강독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직까지 없는 듯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간단한 대화문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긴 스토리 전체를 새도잉을 하는 경우에도 일본어 능력 향상의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3. 조사의 개요

3.1. 조사 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자는 H대학 1학년 초급일본어강독 수강생이다. 초급일본어강독은 3학점이고 교재는 『수준별 일본어 다독 라이브러리 레벨1의 파트1, 2』⁴⁾를 사용하였다. 레벨1의 경우 초급 전반에 해당하며 어휘 350개, 글자 수는 1화 당 400~1500 정도이다. 초급일본어 강독의 목표는 초급 일본어 문법 사항과 어휘를 학습하여 일본어로 된 스토리를 이해하고 습득하는 것이다.

이번 학기는 A반, B반으로 나누어 수업을 진행하였다. A반, B반의 레벨 평가는 SPOT테스트⁵⁾를 실시하였다. SPOT A.ver은 일본어과에서 수업 개시 전에 전체적으로 실시하였다. SPOT B.ver은 각 반에서 학기 첫 수업시간에 실시하였다. SPOT B.ver도 본래 듣기 테스트이지만, 듣지 않고 괄호 안에 직접 정답을 써 넣는 방식으로 테스트하였다. SPOT A.ver는 다음과 같다.

テープを聞いて () にひらがな1字を書きなさい。
 はじめに練習が10あります。テープで「練習」と日本語で聞いて、まず練習してみてください。
 (1)どうぞよろ()く。
 (2)ここは静()ですね。
 (3)おはよう()ございます。

〈그림1〉 SPOT A.ver의 예

SPOT A.ver의 점수 결과로는 A반(26.2점)과 B반(23.7점)의 평균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하지만, SPOT B.ver를 지필 테스트로 실시한 결과를 보면 A반(26.2점)과 B반(8.7점)이 상당히 차이가 난다. A반은 일본어 학습 유경험자가 많고, B반은 일본어 학습 경험이 없는 학생이 많은 편이었다. 두 그룹의 레벨 테스트 결과는 다음 표1과 같다.

4) 『수준별 일본어 다독 라이브러리 레벨1 파트1, 2』(2008)시사일본어사. 감수 NPO법인다독연구회.

5)SPOT(Simple Performance Oriented Test)는 고바야시 노리코(小林典子)에 의해 개발된 테스트로 자연 발화 속도로 읽는 문장을 듣고 해당 용지의 괄호 안에 1문자를 적어 넣는 테스트 방식이다. SPOT A.ver은 65점 만점이고 상급 레벨용이고, SPOT B.ver은 60점 만점이고 초중급용으로 볼 수 있다.

〈표1〉 A반·B반의 레벨 테스트의 결과

그룹	SPOTA.ver(65점)	SPOT B.ver(60점)
A반(15명)	평균 26.2점	평균 26.2점
B반(15명)	평균 23.7점	평균 8.7점

A반은 B반보다 초급 레벨의 문법 지식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결과로 A반이 B반보다 일본어 능력이 상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2. 조사 방법

본 연구에서는 교실 외에서 학생이 과제 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학습법에 초점을 두고 조사하였다. A반은 수업 후 암기를 통해 일본어를 학습하고 B반은 새도잉 연습을 통해 일본어를 학습하도록 지시하였다. 이하, A반은 암기반, B반은 새도잉반이라 칭한다.

〈표2〉 암기반·새도잉반의 그룹 특징 개요

	암기반	새도잉반
수업내의 활동	교사가 읽어주기 읽고 해석하기 문법 설명	읽고 해석하기 문법 설명 새도잉
과제 수행	암기 (학생의 자율방식)	새도잉
과제 수행 후	암기 여부 확인	새도잉 여부 확인

수업 내에서의 활동을 소개하면 암기반은 수업 중에 교사가 본문을 읽어주고 따라 읽게 하였다. 그 후 학생한테 본문을 해석하게 하여 수업을 진행하였다. 한편 새도잉반은 수업 중에도 새도잉 연습을 하며 읽고 해석하며 수업을 진행하였다. 새도잉 연습 방식을 처음 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충분히 방식을 설명하고 전원이 연습하게 하였다⁶⁾. 새도잉 연습의 순서는 일반적으로 듣기→내용 파악→새도잉 순으로 정리할 수 있다.

과제 수행을 소개하자면 암기반은 학습자 개인의 자유로운 방식으로 해당

6) 새도잉 연습은 내용 파악 전에 교과서를 보면서 하는 싱크로 리딩(synchronized reading)을 하기도 하고, 내용 파악을 한 뒤 교과서를 보지 않고 하는 콘텐츠 새도잉(contents shadowing)을 하기도 했다. 수업 내에서는 전원이 동시에 새도잉 연습을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교수자가 학생들에게 새도잉에 대한 피드백은 하지 못했다.

어휘 받아쓰기는 교수자가 읽어주는 단어를 듣고 히라가나로 적고 뜻을 적는 방식이다. 문법 항목 테스트는 학생 스스로 괄호 안에 들어갈 표현을 적어 넣는 방식이다. 또한 일본어 능력 향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SPOT A.ver와 지필테스트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암기와 새도잉 각 학습법에 대한 학생의 의견 및 평가를 듣기 위해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는 마지막 과제 수행을 체크한 후 2018년 5월 30일에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항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암기/새도잉의 연습 빈도 2. 암기/새도잉의 1회당 연습시간 3. 암기/새도잉의 힘든 점은 무엇인가? 4. 암기/새도잉으로 도움이 된 부분은 무엇인가? 5. 암기/새도잉에 대한 질문 및 감상 |
|---|

〈그림3〉 암기와 새도잉에 대한 설문항목

4. 결과와 고찰

4.1. 일본어 능력 향상 테스트 결과

본 연구에서는 과제 수행이 중요한 전제가 되기 때문에 과제 수행 여부에 따라 각 과제별 테스트 참가 인원이 달라진다. 각 반에서 교수자가 체크한 과제 수행 확인 결과를 표4에 정리했다.

〈표4〉 암기반·새도잉반의 과제 수행 여부

과제 그룹	1차)ハチの 話	2차)ジョンさ ん日本へ	3차)浦島 太郎	4차)寿司	5차)ジョンさんバ スの中で
암기반	15명	15명	14명	15명	12명
새도잉반	15명	14명	14명	15명	14명

암기와 새도잉 과제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상자에서 제외된 뒤 지연 테스트 결과를 정리하였다. 우선 암기반의 일본어 테스트 결과를 표5에 정리하였다⁷⁾. 암기반은 평균86.3%의 정답률로 점수가 상당히 높다. 어휘가 87.4%, 문법이 84.5%로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 마지막 과제의 테스트 결과가 어휘

94.2%와 문법 95.7%로 5차례 실시한 중 점수가 가장 좋았다. 과제 수행을 거듭할수록 어휘 면에서도 문법 면에서도 일본어 능력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5〉 암기반의 과제별 일본어 테스트 결과

과제 테스트	1차)ハチ の話 (50점)	2차)ジョンさ ん日本へ (64점)	3차)浦島 太郎(56점)	4차)寿司 (50점)	5차)ジョンさ んバスの中 で(50점)
어휘 139.9점 (87.4%)	28.5점 (95.2%)	33.5점 (83.8%)	26.7점 (89.2%)	22.9점 (76.4%)	28.3점 (94.2%)
문법 93점 (84.5%)	17.8점 (89.1%)	18.9점 (78.9%)	20.6점 (79.3%)	16.6점 (83.2%)	19.1점 (95.7%)
합계 232.9점 (86.3%)	46.4점 (92.8%)	52.5점 (81.9%)	47.4점 (84.6%)	39.5점 (79.1%)	47.4점 (94.8%)

다음으로 새도잉반의 일본어 테스트 결과를 표6에 정리하였다⁸⁾.

〈표6〉 새도잉반의 과제별 일본어 테스트 결과

과제 테스트	1차)ハチの話 (50점)	2차)ジョンさ ん日本へ(64 점)	3차)浦島 太郎(56점)	4차)寿司 (50점)	5차)ジョンさ んバスの中 で(50 점)
어휘 114.4점 (71.5%)	20.9점 (69.8%)	25.4점 (63.6%)	22.1점 (73.8%)	19.5점 (65%)	26.5점 (88.2%)
문법 63.5점 (57.7%)	12.9점 (64.7%)	12.2점 (51.2%)	14.6점 (56%)	10.3점 (51.4%)	13.5점 (67.7%)
합계 177.9점 (65.9%)	33.8점 (67.7%)	37.7점 (58.9%)	36.7점 (65.6%)	29.8점 (59.6%)	39.5점 (73.1%)

새도잉반은 평균 65.9%의 정답률이었다. 어휘가 71.5%, 문법이 57.7%로 어휘면의 성적이 13.8%높았다. 새도잉반도 5차 과제에서 어휘 88.2%, 문법67.7%로 정답률이 가장 높았다. 새도잉반의 경우도 과제 수행을 거듭할수록 어휘 면

7)암기반의 경우 1차 테스트 대상자는 12명(과제 미수행 2명,결시생1명), 2차는 15명 전원, 3차는13명(과제 미수행자 2명), 4차는 11명(과제 미수행자2명, 결시생2명), 5차는 7명(과제 미수행 4명,결시생 4명)이다.

8)새도잉반의 경우 1차 테스트 대상자는 15명 전원, 2차는 14명(과제 미수행 1명), 3차는 14명(과제 미수행 1명), 4차는 14명(결시생 1명),5차는 13명(과제 미수행 1명, 결시생 1명)이다.

에서도 문법 면에서도 일본어 능력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어휘 면이 현저하게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두 그룹은 레벨 차이가 크므로 일괄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정답률의 비교가 아니라 테스트 유형에 따른 결과가 다른 점이 주목할 만하다. 두 반을 비교해 보면 암기반이 새도잉반에 비해 레벨이 높은 그룹이기 때문에 당연히 암기반 쪽이 새도잉반보다 어휘와 문법면에서 모두 평균 정답률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테스트 유형별 결과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암기반은 어휘와 문법 사이에 정답률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새도잉반은 어휘가 문법보다 정답률이 높았다. 암기반보다 레벨이 낮은 새도잉반의 경우 어휘 쪽은 단기간에 연습한 후에도 어느 정도 향상하는 효과가 있지만, 문법의 경우는 습득하는데 있어서 더 많은 연습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본어 능력 향상을 확인하기 위해 두 반의 SPOT A.ver의 사전 테스트와 사후 테스트의 결과를 표7에 정리하였다.

〈표7〉 SPOT A.ver의 사전·사후 테스트 결과

암기반 ⁹⁾ (14명)		새도잉반(15명)	
사전테스트	사후테스트	사전테스트	사후테스트
26.2점	39.8점	23.7점	25.3점

암기반은 26.2점에서 39.8점으로 일본어 능력이 향상 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새도잉반은 23.7점에서 25.3점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암기반은 어느 정도 일본어 학습 경험이 있는 학생들로 암기를 통해 일본어 능력이 더욱 향상될 수 있었다. 한편 새도잉반은 일본어 레벨이 제로 초급에 가까운 학생도 포함되어 있어, 단기간에 일본어 능력이 주목할 만큼 향상되지 못한 것으로 예측된다. 암기와 새도잉 연습으로 학습한 문법 사항이 내재화되어 실제로 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SPOT B.ver의 문제 중, 강의에서 학습한 항목과 일치하는 문법(10문항)을 선택하여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서 테스트했다. 테스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9) 암기반의 경우, 사후 테스트에 1명이 결시하여 14명이 참가했다. 사전 테스트는 2018년3월 7일, 중간 테스트는 2018년4월 25일, 사후 테스트는 기말고사 시험일 2018년6월 20일에 실시하였다.

大学の食堂 (で) 昼ごはんを食べます。
 小さいカメラ (が) ほしいです。
 東京行きのバスは (ど) れですか。
 この中に何 (が) 入ってるんですか。
 あした、いっしょにどこ (か) 行きませんか。
 あしたはどこに(も) 行きたくありません。
 このアパートは静か (で) いいですね。
 私の部屋は広 (く) ないんです。
 午後は部屋に (い) ますから、来てください。

〈그림4〉 지필 테스트 항목

상기 지필 테스트 결과를 표8에 정리하였다.

〈표8〉 지필 테스트의 결과 추이

	사전테스트	중간테스트	사후테스트
암기반	6.4(64%)	5.5점(55%)	7.2점(72%)
새도잉반	2.1(21%)	4.9점(49%)	5.7점(57%)

암기반은 문법 능력이 크게 향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새도잉반은 문법 점수가 상당히 낮았지만 사후에선 약간 향상되었다. 암기반은 6.4(64%)에서 7.2(72%)로, 새도잉반은 2.1(21%)에서 5.7(57%)로 나타났다. 한편 암기반은 중간 테스트에선 점수가 낮아졌다가 사후에선 다시 올라가는 패턴이었고, 새도잉반은 사전에서 중간, 사후까지 계속 상승하는 패턴이었다.

4.2. 학습법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암기와 새도잉 연습에 대한 학생의 의견, 평가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 조사를 했다. 이번 설문 조사에는 30명 중 암기 그룹 9명, 새도잉 그룹 13명, 총 22명만이 참여하였다. 이번 조사는 5단계 리커트 척도법으로 평가하는 방식이다. [매우 그렇다(1) -그렇다(2) -보통이다(3) -그다지 힘들지 않다(4) -전혀 힘들지 않다(5)]로 되어 있다.

연습 빈도를 살펴보면, 암기는 1주일에 2회(5명), 1주일에 3회(1명), 1주일에 4~5회(2명), 1주일에 1회(1명)로 조사되었다. 새도잉 연습은 1주일에 3회(8명), 1주일에 2회(3명), 1주일에 3~5회(1명), 매일(1명)로 조사되었다. 1회당 연습시간을 보면 암기에서는 가능할 때까지 연습한 학생이 있었고, 가장 짧은 경우 20~

25분 정도 연습했다고 한다. 새도잉 연습에서는 1회당 연습시간이 최소 5분에서 최대 30분까지였다. 암기와 새도잉의 연습 빈도와 시간에 대한 조사 결과를 표9에 정리하였다.

〈표9〉 암기·새도잉 연습의 빈도와 1회당 연습시간

암기반1	암기반2	암기반3	암기반4	암기반5	암기반6
주 2회 (1시간)	주 2회 (20~25분)	주 3회 (1시간)	주 1회 (1시간)	주 4회 (30분)	주 2회 (3시간)
암기반7	암기반8	암기반9	새도잉반1	새도잉반2	새도잉반3
주 2회 (30분)	주 2회 (1시간)	주 4-5회 가능할때까지	주 3회 (20분)	매일 (10~30분)	주 3회 (5~10분)
새도잉반4	새도잉반5	새도잉반6	새도잉반7	새도잉반8	새도잉반9
주 3회 (30분)	주 3회 (15분)	주 2회 (30분)	주 3회 (15분)	주 3-5회 (15~30분)	주 2회 (10분)
새도잉반10	새도잉반11	새도잉반12	새도잉반13		
주 2회 (15분)	주 3회 (5~15분)	주 3회 (30분)	주 3회 (15분)		

다음으로 암기와 새도잉의 힘든 점, 도움이 된 점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를 정리해 보면, 대부분 암기, 새도잉 연습에 대해서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암기할 때 힘든 점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는 표10에 정리하였다.

〈표10〉 암기할 때 힘든 점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1)역양 발음이 어려워서 암기하기 힘들었다.				
①매우 그렇다 (0)	②그렇다(4)	③보통이다(3)	④그다지 힘들 지 않다(3)	⑤전혀 힘들지 않다(1)
2)모르는 어휘 때문에 암기하기 힘들었다.				
①매우 그렇다 (0)	②그렇다(1)	③보통이다(3)	④그다지 힘들 지 않다(6)	⑤전혀 힘들지 않다(1)
3)모르는 조사, 문법 때문에 암기하기 힘들었다.				
①매우 그렇다 (1)	②그렇다(2)	③보통이다(3)	④그다지 힘들 지 않다(4)	⑤전혀 힘들지 않다(1)
4)암기 연습은 피로웠습니까?				
①매우 그렇다 (0)	②그렇다(3)	③보통이다(5)	④그다지 피롭 지 않다(3)	⑤전혀 피롭지 않다(0)

*()는 인원수

암기에서는 도움이 된 부분도 회화, 듣기, 읽기 모두에서 대부분 [그렇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특히 읽기 능력에 대해 효과가 높았다.

〈표11〉 암기 효과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1) 암기는 회화 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었다.				
① 매우 그렇다 (2)	② 그렇다(7)	③ 보통이다(2)	④ 그다지 효과가 없었다(0)	⑤ 전혀 효과가 없었다(0)
2) 암기는 듣기 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었다.				
① 매우 그렇다 (1)	② 그렇다(7)	③ 보통이다(3)	④ 그다지 효과가 없었다(0)	⑤ 전혀 효과가 없었다(0)
3) 암기는 읽기 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었다.				
① 매우 그렇다 (5)	② 그렇다(6)	③ 보통이다(0)	④ 그다지 효과가 없었다(0)	⑤ 전혀 효과가 없었다(0)

*()는 인원수

다음으로 새도잉 할 때 힘든 점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를 표12에 정리하였다.

〈표12〉 새도잉 할 때 힘든 점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1) 너무 빨라서 새도잉하기 힘들었다.				
① 매우 그렇다 (0)	② 그렇다(1)	③ 보통이다(4)	④ 그다지 힘들지 않다(11)	⑤ 전혀 힘들지 않다(2)
2) 억양 발음이 어려워서 새도잉하기 힘들었다.				
① 매우 그렇다 (0)	② 그렇다(1)	③ 보통이다(8)	④ 그다지 힘들지 않다(8)	⑤ 전혀 힘들지 않다(1)
3) 모르는 어휘 때문에 새도잉하기 힘들었다.				
① 매우 그렇다 (0)	② 그렇다(3)	③ 보통이다(7)	④ 그다지 힘들지 않다(7)	⑤ 전혀 힘들지 않다(1)
4) 들리지 않아서 새도잉하기 힘들었다.				
① 매우 그렇다 (0)	② 그렇다(2)	③ 보통이다(5)	④ 그다지 힘들지 않다(9)	⑤ 전혀 힘들지 않다(2)
5) 새도잉 연습은 괴로웠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0)	② 그렇다(0)	③ 보통이다(7)	④ 그다지 괴롭지 않다(5)	⑤ 전혀 괴롭지 않다(6)

*()는 인원수

새도잉 연습에서는 모든 항목에서 속도, 억양·발음, 어휘, 듣기에서는 [보통이다] 또는 [그다지 힘들지 않다]로 평가했다. 새도잉 연습은 힘들지 않다는 평가가 대부분이었다.

도움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회화, 듣기, 읽기에 대해 대부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듣기에 대한 효과에 대한 평가가 가장 높았다. 새도잉 쪽은 연습 방법의 특성상 듣기 능력이 가장 향상되었다고 실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3〉 새도잉 효과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1)새도잉은 회화 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었다.				
①매우 그렇다 (3)	②그렇다(7)	③보통이다(8)	④그다지 효과 가 없었다(0)	⑤전혀 효과가 없었다(0)
2)새도잉은 듣기 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었다.				
①매우 그렇다 (6)	②그렇다(10)	③보통이다(2)	④그다지 효과 가 없었다(0)	⑤전혀 효과가 없었다(0)
3)새도잉은 읽기 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었다.				
①매우 그렇다 (3)	②그렇다(10)	③보통이다(4)	④그다지 효과 가 없었다(1)	⑤전혀 효과가 없었다(0)

*()는 인원수

암기와 새도잉 연습에 참여한 학생이 도움이 되었다고 기술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14와 같다.

〈표14〉 암기·새도잉 연습이 도움이 된 점에 대한 기술 내용

암기그룹	새도잉그룹
읽는 속도가 빨라짐. 문법에 맞게 자연스럽게 대화가 가능해 짐. 발음 연습에 도움이 됨. 말하기 능력 향상. 히라가나를 읽을 수 있게 됨. 자연스럽게 읽기. 어휘력 향상.	반복적 연습으로 단어학습에 용이함. 역양 연습이 가능함. 자연스럽게 외우게 됨. 암기보다 새도잉으로 연습하는 것이 일본어 능력이 향상됨. 발음 교정. 듣기와 발음. 일본어를 들을 기회가 많아짐. 초급자에게 부담이 없고 일본어 학습에 도움이 됨. 듣기와 말하기에 도움이 됨.

암기에 대한 감상평을 정리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 힘들었지만 발음, 자연스럽게 읽기, 말하기 등의 실력 향상을 느꼈고 보람이 있었다.] 는 서술이 다수 있었다. 암기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걸리지만 테스트 결과 실력 향상이 확실히 있었고 학생 스스로도 실력 향상을 느끼고 있었다.

새도잉 연습법에 대한 감상평은 [간단하면서 효과적, 암기보다 효과적, 즐겁게 연습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일본어 학습을 위해 새도잉 연습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등과 같은 내용이 있었다. 새도잉반은 수업 초기에 암기를 경험한 적이 있어 암기와 새도잉을 비교해서 서술한 내용이 들어 있다. 새도잉반의 경우 일본어 학습 경험이 거의 없는 학생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인지 암기에 대한

부담감이 컸으리라 예상된다. 하지만 새도잉의 경우 학생에게는 새로운 연습법이었고, 연습 자체가 부담이 적고 즐겁게 할 수 있으며 학생 스스로는 일본어 실력이 향상된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테스트 결과는 주목할 만한 실력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새도잉 연습의 경우 연습 시간을 충분히 더 늘려야만 일본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된다.

5. 맺음말

본 연구는 일본어 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법 중 암기와 새도잉 연습을 도입하여 그 효과를 확인하고 학습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일본어 능력 향상을 확인하기 위해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암기는 일본어 능력 향상이 확인되었으나, 새도잉은 실시 전과 실시 후 사이에 큰 변화가 없었다. 이에 암기가 일본어 학습에 있어서 그 효과가 확실히 나타나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설문 조사에서 암기와 새도잉 연습에 대한 학생의 평가는 긍정적이었다. 암기는 실제로 일본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었고, 학생 스스로도 듣기, 말하기, 읽기 분야에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편 새도잉 연습은 일본어 능력을 향상 시키는 효과 면에서는 주목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학생 스스로는 새도잉 연습을 즐겁게 할 수 있고 듣기, 말하기, 읽기 분야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새도잉 연습의 경우 이번 조사에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는 않았지만 새도잉의 연습 시간을 충분히 더 늘린다면 일본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학습법이 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수자가 학생에게 학습법을 제시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추후에는 같은 레벨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 스스로가 선호하는 학습방법을 선택하게 하여 실시할 경우에 암기와 새도잉의 학습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고찰해 보려고 한다. 그리고 새도잉 연습에 있어서 어느 정도 연습량을 늘려야 일본어 능력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금후의 과제로 삼으려고 한다.

【참고문헌】

- 김경란(2010) 「효과적인 영어 학습의 암기 모델」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pp.1-65.
- 류자미·오성록(2006) 「통문장암기와 짝활동을 통한 한국어 말하기 향상 융합전략」 『한국융합논문지』 7(2), 한국융합학회, pp.77-84.
- 신선혜·김태은(2011) 「암기 전략과 의미망 전략이 초등 영어 학습자의 어휘 습득에 미치는 영향」 『외국어 교육연구』 29(2), 한국외대외국어교육연구소, pp.77-105.
- 임미진(2011) 「암기 활동을 위한 수업 모형: 드라마 번 노트스를 중심으로」 『영어영상교육』 vol.12, 영어영상교육학회, pp.177-199.
- 門田修平·玉井健(2004) 『決定版 英語シャドーイング』コスモピア, pp.40-51.
- 門田修平(2010) 「なぜシャドーイングは第二言語習得に効果があるのか」 『シャドーイングを日本語指導へ～理論と実践を学ぶ～』日本語教師のためのシャドーイング・セミナー資料, pp.25-31.
- 門田修平·中野陽子·風井浩志·川崎まり子他(2014) 「英語シャドーイングが英語読解プロセスに与える影響: 近赤外分光法による脳内処理メカニズムの検討」 2014年度日本認知科学学会第31回大会発表要旨, pp.2-11.
- 邱学瑾(2011) 「シャドーイング練習は敬語の口頭運用能力の向上におけるシャドーイングの練習効果について」 『台湾日語教育學報』 17号, 台湾日語教育学会, pp.187-213.
- 迫田久美子(2006) 「「わかる」から「できる」への運用力養成のためのシャドーイング研究」 第6回日本語教育国際研究大会予稿集, pp.1-4.
- 迫田久美子·松見法男(2005) 「日本語指導におけるシャドーイングの基礎的研究(2)—音読練習との比較調査からわかること」 日本語教育学会秋季大会ポスター発表, pp.241-242.
- 酒井真弓(2006) 「発音指導法としてのシャドーイングの効果に関する一考察」 『日語日文学研究』 61輯, 韓国日語日文学会, pp.159-174.
- 張惠貞·倉持香(2008) 「シャドーイングを取り入れた日本語学習の効果について—韓国の初·中級レベルの大学生を対象として—」 『ForeignLanguagesEducation』 15(3), 韓国外国語教育学会, pp.345-358.
- 崔真姫(2012) 「視聴覚日本語におけるシャドーイング法の実践研究—初級レベルの学習者を対象に—」 『日本文化學報』 55輯 韓国日本文化学会, pp.81-94.
- 崔真姫·趙宣映(2018) 「文法能力の向上のためのシャドーイングの活用」 『日本語教育研究』 43輯 韓国日語教育学会 pp.245-258.
- 広森友人(2017) 『外国語学習のメカニズム: 第二言語習得にもとづく理論と実践』 JLEC14, pp.1-4.
- Cook, V. 1994. Universal grammar and the learning and teaching of second language. in T. Odlin (Ed.) Perspectives on pedagogical gramma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25-48

논문 투고 일자 : 2018. 10. 06.
논문 심사 일자 : 2018. 11. 07.
게재 확정 일자 : 2018. 11. 09.

 < 要旨 >

 日本語能力の向上のための学習法に関する実践研究
 - 暗記とシャドーイング練習を対象に -

朴蕙成・崔真姫

日本語能力の向上のためには、教授者の役割だけではなく、学習者がどのような練習法を行うのかも重要であると考えられる。本研究ではそのような考えに基づいて、学生が課題遂行のために行う学習法として暗記方法とシャドーイング練習法に注目し、その効果を明らかにするための調査を行った。また、暗記とシャドーイング練習を経験した学生にそれぞれの学習方法に関して、どのような評価をしているのかを調査した。課題遂行の後、暗記とシャドーイング練習の効果を確かめるために行った調査では暗記もシャドーイング練習も、語彙面の向上、文法の習得において日本語能力が向上された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暗記の場合、語彙と文法との間に大きな差がなかったが、シャドーイング練習の場合、語彙力のほうが文法能力より向上されていた。また、事前テストと事後テストを比べた結果、暗記においては日本語能力の向上が確認されたが、シャドーイング練習においては日本語能力に有意な変化が見られなかった。一方、暗記とシャドーイング練習に関する学生の評価について調査した結果、両学習法に対して肯定的に考えている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暗記は実際日本語能力を向上させる方法であり、学生自ら聞く能力、話す能力、読む能力に役立ったと評価している。シャドーイング練習法は短期間の練習で日本語能力を向上させることはできなかったが、学生自ら聞く能力、話す能力、読む能力に役立ったと評価している。今後学習者がシャドーイング練習をつづけていけば、日本語能力を十分に向上させることも期待できる方法であると考えられる。

 Study on learning method for improving Japanese language proficiency
 - Focusing on memorization and shadowing -

Pak, Hye-Song · Choi, Jin-Hui

This study is about learning Japanese language. It includes the effectiveness of memorization and shadowing with the result of survey on learning method. A test for language improvement shows that memorization helps to improve Japanese language proficiency, but shadowing does not affect. It's obvious that memorization is a very effective way to improve Japanese language proficiency. On the other hand, survey respondents positively assess both memorization and shadowing. Memorization shows real improvement of Japanese language proficiency, the language learners who answer the survey also say that it helps speak, read and listen to Japanese. In terms of effectiveness, shadowing does not shows outstanding results for improving Japanese language proficiency. However, the language learners say that shadowing is helpful for learning as it makes them practice the language easily and interestingly. They think shadowing helps speak, read and listen to Japanese. Shadowing does not shows meaningful result now. If it is practiced for plenty of time, however, it also can be a good learning method which helps language learners improve their Japanese language proficiency in the long run. 'How long does shadowing be conducted to improve Japanese language proficiency?' will be my next subject of study.